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429

JCCT 2021-11-5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이윤정*, 장현정**

Yun Jeong Lee*, Hyun-Jung Jang**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3.61점(5점), 눈치 3.57점(5점), 임상실습스트레스 2.97점(5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능력, 눈치-행동이었고, 대인관계능력과 눈치-행동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23%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대인관계능력, 눈치, 임상실습스트레스,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91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22.0 program. Study result turned up interpersonal ability is 3.61points(5points), nunchi is 3.57points(5points), clinical practice stress is 2.94points(5points).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tress were interpersonal ability, and nunchi Behavior. These variables were 23.5% influential in explaining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is resul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prepare a plan to reduce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Interpersonal Ability, Nunchi, Clinical Practice Stress, Nursing studen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교육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구축한 학습성과 기반 교육체계와 현장실무능력 강화 방침에 따라 그 중요성과 비중이 강조되고 있으며,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태도, 간호전문직관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1].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임상실습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감정, 사고과정, 그리고 육체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어 걱정이나 근심을 느끼게 하는 긴장상태를 의미하며[3],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호대학생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이론과 실습의 차이로 인한 혼란, 전문지식 부족 및 자신감 결여, 대인관계에서의 경험부족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4]. 또한

*정회원, 가톨릭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제1저자)

**정회원, 가톨릭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10월 4일, 수정완료일: 2021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30일

Received: October 4, 2021 / Revised: October 21, 2021

Accepted: October 30, 2021

*Corresponding Author: janghj@kkot.ac.kr

Dept. of Nursing, Catholic Kkottongnae Univ, Korea

권위적이고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의료인의 모습은 이를 직면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불안, 실패감, 긴장, 좌절, 그리고 우울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5]. 이러한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으면 학습능력 저하와 임상실습을 이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따라서 임상실습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실무현장에서 역량을 다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교육기관에서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대상자와 함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고 조력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의사소통능력을 활용하여 대상자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7]. 대인관계능력은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임상실습 과정동안 환자, 보호자 및 간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요 요인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을 연구한 선행문헌을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이 좋은 경우 학교생활 및 가족생활의 적응도가 높은 반면 [8] 대인관계가 미숙하면 원만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긴다[9]. 이러한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대학생들에게 있어 스트레스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10]. 또한, 대인관계능력 속에서 얻어지는 지지와 격려는 다양한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기여함으로 사회적 기능과 정신적, 심리적 안녕을 위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11].

눈치는 상대방의 마음(생각, 느낌, 기분 등)이나 처한 상황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마음이나 처한 상황의 분위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12]. 간호학생에게 병원실습 상황은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빠른 의사결정은 상황적 적응이 요구되므로 상황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눈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고[13],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동안 적응을 위해 눈치를 대처 기전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1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눈치가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 임상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자아 탄력성 등이 임상실습 과정 동안 간호대학생에게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으로 제시하고 있다[6][9][13][15][16].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의 눈치가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 눈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눈치,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한다.
- 3)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C지역 소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연구 참여 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며, 설문지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개인비밀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50,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인 13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131명이었다. 탈락률을 고

려하여 설문지 200부를 배부하고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19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Schlein과 Guernsey(1971)[17]의 대인관계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전석균(1994)[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의 2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전석균(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6$ 로 나타났다.

2) 눈치

눈치는 허재홍과 박원주(2013)[12]가 개발한 눈치 척도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척도의 12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눈치-파악'과 상대방이나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눈치-행동'요인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눈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7$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로 나타났다.

3)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김순례와 이종은(2005)[19]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의 24문항으로 하위요인 5개 실습교육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실습 업무부담,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인관계 능력, 눈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91)

Characteristics	Category	N(%)	M±SD
Gender	male	35(18.3)	
	female	156(81.7)	
Grade	3rd	130(68.1)	
	4th	61(31.9)	
Religion	Have	101(52.9)	
	None	94(49.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ies	97(37.4)	3.476±0.716
	Usually	56(45.0)	
Major Satisfaction	Not satisfied	11(5.8)	3.701±0.794
	Satisfies	117(61.3)	
Major Satisfaction	Usually	645(33.5)	3.701±0.794
	Not satisfied	10(5.2)	

2. 대인관계능력, 눈치,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은 3.61±.466점, 눈치는 3.57±.554점으로, 하위요인인 눈치-행동은 3.64±.552점, 눈치-파악 3.51±.655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2.97±.529점으로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실습업무부담 3.43±.663점, 실습교육환경 3.37±.731점,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2.95±.720점, 환자와의 갈등 2.63±.631점, 대인관계 갈등 2.67±.630점 순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눈치,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
 Table 2. Degree of Interpersonal Ability, Nunchi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N=191)

Variables	M±SD	Min	Max
Interpersonal Ability	3.61±.466	2.0	5.0
Nunchi	3.57±.554	1.58	5.0
Nunchi-identification	3.51±.655	1	5.0
Nunchi-action	3.64±.552	1	5.0
Clinical Practice Stress	2.97±.529	1.0	3.95
Practical training environment	3.37±.731	1.40	5.00
Undesirable role model	2.95±.720	1.00	4.50
Practice work burden	3.43±.663	1.75	5.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2.41±.634	1.00	4.50
Conflicts with patients	2.67±.630	1.00	4.00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변인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대인관계능력($r = -.047, p < .05$), 눈치-행동($r = -.254,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3>.

4.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bin-Watson 값은 2.081로 2에 근접하여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 값은 0.1이상이었으며, VIF 값은 1.18-1.34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은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회귀분석 시 주요변인만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능력($\beta = -.220, p < .01$), 눈치-행동($\beta = -.413, p < .001$)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23.3%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표 4>).

표 3.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191)

Variables	1	2	3	4
1= Interpersonal Ability	1			
2= Nunchi-identification	.449***	1		
3= Nunchi-action	.551***	.626***	1	
4= Clinical Practice Stress	-.047*	-.105	-.254***	1

*p<.05 **p<.01 ***p<.001

표 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N=191)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2.717	.281		9.664***
Interpersonal Ability	-.230	.085	-.220	-2.702**
Nunchi-identification	.027	.063	.036	.427
Nunchi-action	-3.64	.080	-.413	-4.575***
$R^2 = .235, F = 9.407, p < .001$				

*p<.05 **p<.01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3.61점으로 중간수준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

관계능력을 조사한 선행연구[6]와 비슷한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기간 동안 신체적, 정서적으로 긴장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 다양한 보건의료진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맺기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능력이 발달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임상현장의 간호사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되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13]. 간호사는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과 달리 임상현장에서 민감한 긴장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대인관계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눈치는 3.57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 한 연구[20]와 유사한 결과이고,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21]보다는 높았다. 이는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눈치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간호대학생[14][22]은 임상실습 과정 중 낮은 임상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긴장문제가 있는 민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실수를 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임상현장 간호사들의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때 순간 긴장하면서 실습에 임하기 때문에 눈치가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2.97점으로 중간수준이었다. 이는 선행연구[23][24]와 비슷한 결과이지만, 타 보건의료 전공인 치위생과[10]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보다는 높았다. 임상실습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실습업무 부담(3.43±.663)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13][25]와 비슷한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실습업무에는 실습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습 중 완수해야 하는 과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은 과제물로 인해 실습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습업무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임상실습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과제물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다른 선행연구[25][26]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임상실

습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눈치-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실습스트레스와 눈치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12]에서 눈치가 발달하게 되면 상대방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행동을 하고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고, 눈치와 대인관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의 태도, 역할갈등 등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27]있는 간호대학생에게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환자 및 보건의료진들 간의 대인관계 관련 문제해결능력과 더불어 눈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눈치-행동, 대인관계능력으로 확인되었고, 눈치-행동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았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23.3%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상대방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눈치-행동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눈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눈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눈치는 중간수준보다 높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눈치-행동과 대인관계능력이었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23.5%의 영향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대인관계능력과 함께 눈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간호대학생의 눈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와 눈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A. Y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0, No.3, pp.325-334. 2004.
- [2] H. J. Park. and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 14-23, 2010.
- [3] D. L. Beck and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127-133. 1991.
- [4] Wallace, L., Bourke, M. P., Tormoehlen, L. J., and Poe-Greskamp, M. V. "Perceptions of clinical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12, No.1, pp. 91-98, 2015.
- [5] Babenko, M. Y., and Laschinger, H. K. "Effects of incivility in clinical practice settings on nursing student burnou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11, No.1, pp. 145-154, 2014.
- [6] J. H. Yun, and S. J. Boo, "Factors Affecting Levels of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5, pp.1199-1214,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5.1199>
- [7] M. S. Yoo, Y, S. Kim, M. S. Hwang, and J. A. Ahn, "Analysi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Capacit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Health Communication*, Vol.7 No.1, pp.18-27, 2012. DOI: <http://dx.doi.org/10.15715/kjhcom.2012.7.1.18>
- [8] M. H. Kim, "A Study on Ego-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and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7, No. 1, pp. 55-64, 2008.

- [9] H. S. Lee, E. H. Choi, and M. Y. Hwang, "Effects of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flict Resolution Styles, and Self-Esteem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6, No.2, PP. 1-22, 2009.
- [10] H. N. Lee and E. M. Kim, "Anxiety and fatigue related to dental practice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4, No.2, pp.131-137, 2014.
- [11] Y. H. Park, "The Effects of Korean Parent-Child Relationship on th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Focused on Bu-Ja-Yu-Chin-Sung-Jeong, Attachment, We-Consciousness, Self-Differenti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6.
- [12] J. H. Heo & W. J.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nchi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6, 14(6), pp. 3537-3555, 2013. DOI : 10.15703/kjc.14.6.201312.3537
- [13] J. K. Lee. "The Relationships among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 Nunchi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015.
- [14] M. J. Kim, and S. Y. Yoo, "The Perception-Coping Types of Initial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Q 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32 No.1, pp. 105-118, 2014.
- [15] E. J. Shin, and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7. No.1, pp. 5636 - 5645, 2013.
- [16] Evans, W., & Kelly, B. "Pre-registration diploma student nurse stress and coping measures", *Nurse Education Today*, 24, pp. 219-228, 2004.
- [17] Schlein, S. & Guerny, B. G. "Relationship enhancement", Sanfrancisco, CA: Josey-Bass. 1971.
- [18] S. G. Jeon, "(A)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rehabilitation of the schizophrenic patients", (Unpublished PhD thesis). The Soongsil University, Seoul, 1994.
- [19] S. O. Kim and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 - 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98-106, 2005.
- [20] M. K. Jeon, M. Y. Han, I. J. Kim, and Y. S. Kim, "The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y, Nunchi,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5, pp. 85-94, 2021.
- [21] S. H. Kim, S. Y. Park, and M. J. Baek, "Mediating Effects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Nunchi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30 No. 1, pp. 1-8, 2021.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21.30.1.1>
- [22] H. J. Park, and H. J. 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Nunchi in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 48-57, 2019.
- [23] M. S. Kim and J. A. Park, "Effects of incivility experienced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urnout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 Vol.18, No.10, pp.811-828.
- [24] H. M. Hwang, "Relationship among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12, No.1, pp. 1-10. 2017.
- [25] H. W. Kwak, and J. E. Lee,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147-15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147>
- [26] E. J. Lim, and M. H. Lee, "Convergenc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5, pp. 279-286,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5.279>
- [27] B. K. Kim, "Factor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Yonsei University, Seoul, 2016.